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응시하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4월 둘째 주 상영작 공개
'그날, 바다' · '눈꺼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응시하는 영화 '그날, 바다'와 '눈꺼풀'을 4월 둘째 주 작으로 상영한다.

'그날, 바다'는 사고 당시 세월호의 항로를 기록한 AIS를 추적해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침몰 원인에 대해 과학적인 분석과 증거로 접근하는 추적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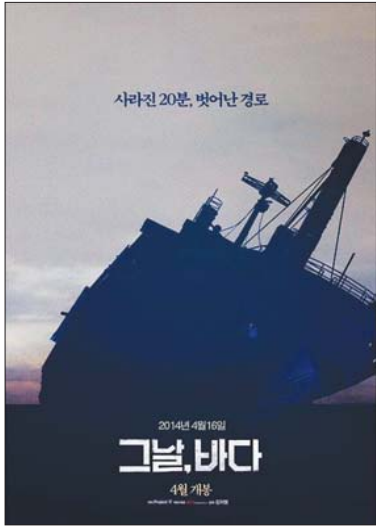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분석을 근거로 인천항을 출발해 광복항으로 향한 세월호의 항적을 따라가며 오직 팩트에 기반해 세월호 침몰 원인을 추적하고 있다. 4년간의 치밀한 취재 과정을 배우 정우성이 내레이션으로 풀어내 관객들의 기대를 모은다.

'눈꺼풀'은 모든 사람들에게 착잡한 마음과 슬픔을 안겨준 세월호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진혼곡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슬: 끝나지 않은 세월'로 전 세계 언론과 평단에 깊은 울림을 선사한 오명 감독의 신작.

그는 모두가 잠 못 이루던 2014년 4월, 희생자들을 위해 뭐라도 해야겠다는 간절함에 카메라를 들었다고 연출 의도를 밝혔다.

또 한편의 영화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



'그날, 바다' 포스터

님'은 동물원에서 호랑이가 탈출하던 어느 겨울 날, 영문도 모르고 갑작스레 여자 친구에게 버림받은 경우 앞에 불현듯 나타난 소설가 유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작품은 서울 곳곳을 배경으로 겨울날의 풍경을 낚설지만 따스하게 담아내고 있다.



'눈꺼풀' 포스터

호랑이보다 무서운 겨울손님은 '로맨스 조' '꿈보다 해몽' 등 전작을 통해 스토리텔링의 마술사로 인정받은 이광국 감독의 신작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홈페이지(<http://theque.jif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인간의 모습 돌에서 찾다

최숙 작 '가족의 재발견'

최숙 '석계(石界)' 개인전

무심히 발에 채인 돌맹이 하나에 꽃혀 그 균열을 따라가다가 인간의 내면세계를 마주했다는 최숙 작가. 그는 인간의 참모습을 돌에서 찾는다.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돌처럼 살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돌을 의인화한 작품을 선보이는 그가 11~16일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석계(石界)전을 갖는다.

이번 전시는 제주도 여행에서 발견한 화산암을 소재로 그린 '가족의 재발견'과 '넌 어느 별에서 왔니' '우주와 돌 판타지' 시리즈 등을 보여준다. /정해은 기자

이들 작품 중 '가족의 재발견' 속에 등장하는 돌들은 마치 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큰 돌 두개와 아이들의 모습을 하고 있는 작은 돌들이 이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가족의 모습은 생기 있고 온화하며 사랑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저 서로의 삶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존재로서의 우주적 의미도 지닌다. 작가는 "지구도 하나의 큰 돌이라며 생명체의 진화 과정뿐만 아니라 사람의 역사도 돌과 관련이 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자연성도 그 안에 다 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여섯가지 설렘'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018년 봄 여행주간을 맞아 '세계태권도성지, 태권도원'에서 '여섯가지 설렘'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 봄 여행주간은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로 태권도원에서는 '여섯가지 설렘'을 테마로 태권도원 무료입장과 연수원 숙박시설 일반인 개방, 봄·봄·봄 가족캠프, 공방·전통놀이·미션 수행 게임 등 봄 맞이 특별이벤트, 태권도 시범공연·The-춘향, 국립태권도 박물관 기획전 등 특별하고도 다양한 즐길거리·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먼저, 봄 여행주간에 태권도원을 찾으면 '무료입장'을 할 수 있다. 특히, 매일(월요일 휴관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있는 태권도 시범공연 'The-춘향'은 격파와 품새 등을 중심으로 연극적 요소를 결합한 작품으로,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담은 등 남녀노소 누구나 태권도의 멋진 매력에 빠져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봄 맞이 야외 특별 이벤트(2회 / 4.28~29, 5.5~6)는 T1경기장 앞 공간을 활용해 '공방'과 '전통놀이' 등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태권도 박물관의 기획전시 등은 국기 태권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이해하는 교육적 여행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역사박물관 '어린이 꽃심 지킴이' 참가자 모집

이달부터 6월까지 교육

전주역사박물관은 12일까지 '어린이 꽃심 지킴이, 여러분이 꽃심입니다'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어린이 꽃심 지킴이'는 지역 어린이들이 전주정신을 익히고 체험해보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과정은 화예사와 함께 전주정신인 '꽃심, 대동·풍류·울금음·창신'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전주역사박물관 상설전시실 관람 후 이와 관련된 사발통문 만들기·태조어진 입체카드 만들기·선비 옷 입고 예절배우기·관소리 배우기 등의 체험이 이루어진다.

교육생은 교육 수료 후 '어린이 꽃심 지킴이'에 임명, 전주정신의 가치를 지키고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교육은 4월부터 6월까지 셋째 주 토요일 10~12시에 진행되며, 신청은 전주역사박물관 홈페이지에 하면 된다. 초등학생 3~6학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명 모집한다. 참가비는 만원.

이동희 관장은 "'어린이 꽃심 지킴이'를 통해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전주정신에 대해 알리고, 전주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 꽃나무 새싹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능름한 장병들, 사진 속에

김승호 작가가 창군 제70주년을 맞아 전북도청에서 '조국애 산다'를 주제로 사진전을 열고 있다.

이번 사진전은 군 복무에 임하는 장병들의 감인하고 능름한 모습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군의 모습까지 하나하나를 진솔하고 사실적으로 카메라에 담아냈다.

작품은 누군가에게 군 복무시절에 겪었던 소중한 일들을 회상하게끔 하며, 또 누군가엔 훈련을 통해 강한 전사의 모습으로 변모해 가는 아들·딸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생태환경 중심의 사실적인 사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 작가는 2014년 육군 35사단과 인연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를 돌며 군 관련 작품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군에 대한 사진 홍보활동을 펼쳐 이듬해에는 육군본부에서 주최하는 '육군에 도움을 주신 분'에 선발되기도 했다. 현재 35사단 홍보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김승호 사진전 '조국애 산다', 13일까지 전북도청서

김 작가는 "군인이야말로 조국을 가장 사랑하는 국민"이라며 "밤낮으로 조국수호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모습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13일까지.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